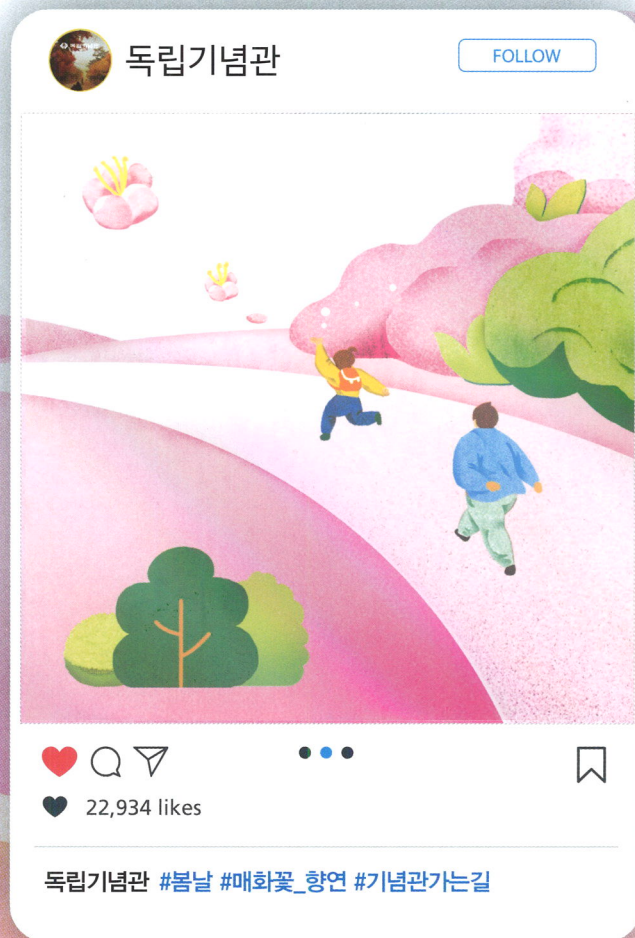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04

꽃이 나리는 봄날의 향기



2021. 8. 19

툰아보기 속 인물 살펴보기

언론인들의

투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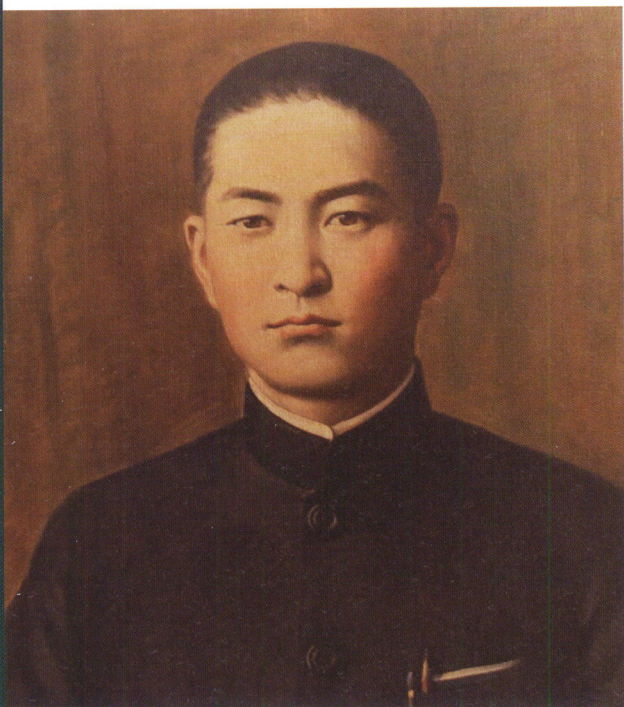
희생



일제 강점기 무수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많은 영웅들이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신념과 가치,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기록들은 값진 유산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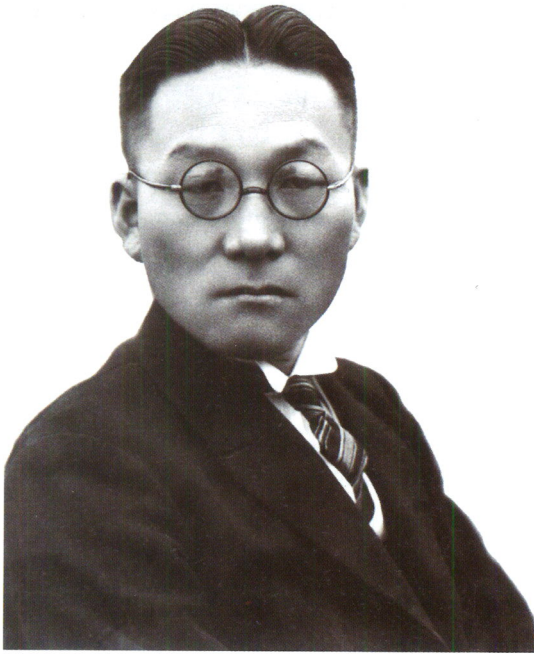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덕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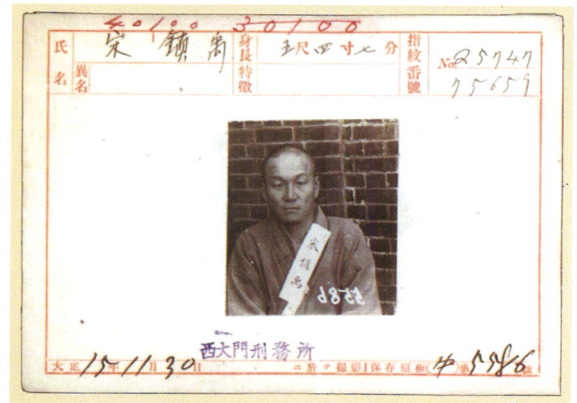
동포의 학살 참극 취재하러다 순직한 장덕준

우리나라 최초의 순직 기자는 『동아일보』의 장덕준(張德俊, 1892~1920)이다. 총독부는 1920년 9월 25일 『동아일보』에 무기 정간 처분을 통보하였다. 9월 24일과 25일자 연속 사설 「제사(祭祀) 문제를 재론하노라」에서 일제가 신념의 중추로 삼는 이른바 3종의 '신기(神器)'인 거울, 구슬, 칼 등을 비하함으로써 결국 황실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였다. 이 논설만이 아니라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14회 연재한 「대영(大英)과 인도(印度)」라는 시리즈 기사도 문제였다. 이 연재 글이 20세기 인도에서 영국이 저지른 악정을 논하면서 암암리에 이를 조선과 대비하였다는 사실도 『동아일보』 정간 이유의 하나였다.

총독부는 정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였다. “『동아일보』는 창간 후 여러 차례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총독부가 주의를 환기했을 뿐 아니라 8월에는 발행인을 소환하여 최후의 경고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도 로마의 흥망을 논하면서 조선의 부흥을 말하며 이집트의 독립, 아일랜드 독립 문제를 보도하면서 조선의 인심을 자극하고 영국의 반역자를 찬양하여 일본에 대한 반역심을 자극하는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총독 정치를



『동아일보』사장 및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송진우



송진우의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부정하여 일반의 오해를 심절(深切)하게 함에 노력하였다.”
『조선일보』는 이보다 먼저 정간 처분을 받아 발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동아일보』의 정간으로 두 신문이 동시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무렵, 만주의 훈춘(琿春)에서는 일본군이 조선 동포를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청산리에서 독립군에 패한 보복으로 주민 5천여 명을 어린 아이 가리지 않고 학살한다는 소식을 들은 장덕준 기자는 분연히 현지로 달려갔다. 취재를 해도 『동아일보』가 정간 중이었으니 보도할 지면도 없었고, 자신은 폐병에 걸려 혈담까지 토하는 건강 상태였다. 그러나 열정적 성격이었던 그는 단신 죽음의 땅으로 뛰어들었다. 장덕준이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난 때는 10월 중순이었다. 그는 두만강에 접한 함경북도 회령을 거쳐 간도로 건너갔다. 11월 6일 무사히 간도에 도착했다는 전보가 있는 후에 “빨간 핏덩이만 가지고 나의 동포를 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쫓아보니 우리가 상상하던 바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라며 살풍경이 일어나 공포의 기운이 가득한 간도 일대에는 죄가 있고 없고 간에 남녀노소가 살육의 난을 당하고 있는 광경 등 일본군의 만행을 취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장덕준은 일제 경찰 두세 명에게 불려 어 나간 후로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는 우리 언론 사상 첫 순직 기자가 되었다. 나이는 29세,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으니 기자정신의 표본이었다. 장덕준의 동생은 『동아일보』의 창간 주필인 장덕수였다. 장덕수도 해방 후에 암살당하였으니 두 형제가 비명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민족대표 48인, 『동아일보』사장 송진우

송진우(宋鎭禹, 1890~1945)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정치가로 활동한 민족진영의 거목이었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투옥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1924년 『조선일보』 주필에 취임하여 사장까지 역임한 안재홍

창간 당시에는 옥중에 있었으나, 1920년 11월 1일에 석방되어 이듬해 9월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발족되면서 사장에 취임했다. 31세의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이로부터 2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의 사장 또는 주필을 맡아 민족 언론을 이끄는 실질적인 견인차였으며 민중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총독부는 기사 삭제, 지면 압수, 정간 처분을 비롯하여 투옥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을 자행하였으나, 신문사는 항일 민족진영의 본거지였고 송진우는 그 울타리가 되었다. 『동아일보』 주필을 맡고 있던 1926년 3월에는 소련 국제농민회 본부가 3·1운동 7주년을 맞아 조선 농민들에게 전해 달라고 보내온 전보문을 게재하였는데, 총독부는 이를 빌미로 정간을 통보하였다. 송진우는 재판에 회부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1936년의 일장기 말소사건도 송진우 사장 때의 일이었다. 1945년 해방 정국의 정계에 투신하여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수석총무로 활약하면서 이해 12월 1일 『동아일보』 복간 사장에 취임했으나, 한 달 후인 12월 31일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과한의 흉탄에 쓰러졌다. 정부는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투옥의 연속 안재홍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일제 강점기의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이다.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필화와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아홉 차례나 투옥되어 모두 7년 3개월에 걸친 복역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제하 최대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 총무간사를 역임했으며, 광복 후에는 미군정 민정장관, 제2대 국회의원으로 민족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 활동으로는 1924년 3월 31일 최남선이 『시대일보』를 창간했을 때 논설위원과 정치부장을 겸하다가 같은 해 11월 『조선일보』로 옮겨 주필 겸 이사를 맡았다. 1925년 4월에 열린 전조선기자대회에서 부의장에 선출되었고, 1926년 9월부터는 『조선일보』 주필로 발행인을 겸했다. 1928년 1월 21일에 이관구가 집필한 「보석(保釋)지연의 희생, 공산당사건의 실례(實例)를 견(見)하라」는 사실이 문제 되어 금고(禁錮) 4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곧이어 5월 9일 일본군의 소위 산둥(山東) 출병을 비판한 사설 「제남



안재홍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1936)